

기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초연결(超連結), 그 너머의 세상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북적북적한 명절 분위기도, 보고 싶은 친구들 모임도, 겨울 여행도 사라진 채 여전히 집콕 생활의 연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동선은 잠시 멈춘 듯하지만 세상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음성기반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는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자제해야만 하는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과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연결하기를 확장하고 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약 500년 걸쳐 로마제국은 8만km나 되는 도로를 건설하여 연결성을 확장하였다. 도로 덕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

자교역, 교육, 다양한 활동 등이 발생하여 다양한 가치와 정보가 생성되고 이는 다시 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방대한 도로망은 거대한 로마제국 형성에 밑거름이 된 것이다.

현대에서 이런 도로의 의미는 연결성(connectivity)이라고 불리며, 도시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도로는 사람들과 장소를 연결하여 도시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고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서로 연결되어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초연결사회는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정보가 만들어져 공유되고 활용되는 사회이다.

초연결사회는 개별 맞춤형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와 편리함을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같은 감격을 먹고 수십 명이 동일한 수업을 듣는 것을 당연시해 왔지만,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서비스 공급방식이 개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학습역량 등을 배려했을 가능성은 작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밀 의료, 맞춤형 교육 등은 획일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누가 사용하는지 미리 파악할 필요 없이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맞춤형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연결을 통해 데

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점점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주거, 교통, 금융, 관광, 각종 상거래, 문화소비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초연결사회에서는 일하는 방식도 변화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를 통해 일하는 공간의 자유로움을 경험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되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 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으로 연결이 보편화 되면서 사람들의 동선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언제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기에 개인에 맞는 시간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초연결사회가 가져올 이 슈가 이처럼 낙관적인 면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패스트푸드 가게 키오스크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 대신 기계를 통해 주문하는 것이 대기시간이 짧아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문제는 초연결사회에서 보다 심각할 수 있다.

또한 초연결사회에서 특권을 가진 소수가 디지털 라이프에서 얻는 경제적, 교육적, 건강적 혜택을 독식하게 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파워엘리트가 인터넷을 통제하고 대중을 조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압제는 어떠한가? 시장에서는 플랫폼 경제를 장악하는 승자의 독점적 지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초연결사회가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일자리의 위협, 기술적 오작동, 가짜 뉴스와 맬웨어(malware), 스팸(spam) 등 사이버 보안 위협 등의 부작용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물리적인 안전이나 보안이 붕괴되

면 순식간에 일상이 마비될 수 있기에 초연결사회로 갈수록 안전과 보안은 더욱 중요해진다.

기원전부터 인류는 연결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기술변화가 가져올 초연결사회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완벽한 연결성(seamless connectivity)이 새로운 규범이 되는 초연결사회에서 네트워크로부터 단절된(unplugged)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로마의 도로망이 제국의 안정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한 반면, 외세의 침입을 용이하게 한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초연결사회가 가져오는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대비해야 한다.

더 나은 삶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연령, 직업, 경제 수준 등에 의해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초연결 사회의 혜택을 끌고갈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무분별한 기술우위 사회에서 공공재를 보호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초연결사회라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시스템의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안전한 행복한 겨울을 보내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각 가정·생활공간에서는 전열기구 사용 시 주변의 물건을 치우고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을 전기제품은 전원을 차단해야 과열, 합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구입 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사용하기 전에

는 제품의 전선 훼손이나 전원코드 이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자.

셋째, 화목보일러는 과열되면 발생하는 복사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도 실시해야 한다.

넷째,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꼭 구비하고 평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좋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다.

소방서에서는 모든 주택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서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민원반/동북119안전센터소방교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광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